

다이린지 절과 11면 관음 입상

다이린지 절(기타신마치 무카이)은 유즈넨부쓰종파. 산호는 후닌잔. 가와치 사이고쿠 33 개소 순례사찰의 5 번째 영지이다. 본존은 아미타여래 입상(에도시대 후기)이며, 부동명왕 좌상(에도시대 중기)과 고보 대사 좌상(에도시대 중기)도 모시고 있다.

메이지시대 초기까지 단보쿠군 무카이무라였던 이 지역에는 유즈넨부쓰종파의 넨부쓰지 절이 있었지만 폐사되어 1878 년에 현 사카이시 미하라구 오와이(옛 가와치국 단군)에 있던 다이린지 절을 이축한 것이다.

무카이무라에는 니시요케가와 강 건너편의 누노세 신사 남서쪽에 요코지 절(누노세 데라 절)이 있었다. 요코지 절은 헤이안시대 후기였던 1089 년에 요코 율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일시적으로 쇠퇴하지만 가마쿠라시대의 고안 연간(1278~1288)에 야마토 사이다이 절의 에이손 스님에 의해 재건되었다. 에도시대에는 ‘누노세 관음’으로 신앙을 모으고 있었다. 그러나 1873 년에 폐사되어 동시에 많은 절간의 비품이 다이린지 절에 인수되었다.

다이린지 절 본당에 안치되어 있는 11면 관음상은 헤이안시대 후기인 10세기 말~11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요코지 절의 본존이었다. 에도시대에는 11면 관음상 판목으로 찍어낸 인쇄물도 유포되어 ‘가와치 가가미 명소기’와 ‘가와치 명소 그림책’에도 소개되었다.

본 불상은 머리부와 몸통부를 하나의 편백 통나무로 조각하였으며 높이는 171.5cm로 등신대 불상이다. 중앙의 불사가 만든 ‘나라계통의 불상’으로 여겨진다.

오사카부 내에서도 머리 위에 11면이나 되는 화불을 가진 등신대의 11면 관음상은 보기 드물다. 미나미카와치 지방의 헤이안시대 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귀중한 불상이므로 마쓰바라시는 2009년 2월에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